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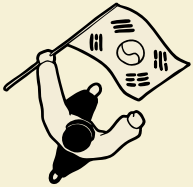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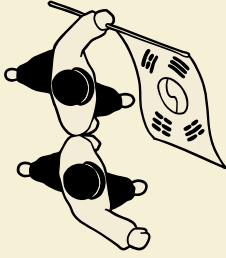


부산의
학생들

2025. 05. 13.
- 2026. 01. 25.

노립을
외치다

부산의 학생들



2025. 05. 13.
- 2026. 01. 25.

노립을 외치다

2025년 부산교육역사관 기획전 <<부산의 학생들, 독립을 외치다>>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부산 지역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1919년 부산에서 시작된 3·1운동과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독립을 외쳤던 학생들의 이야기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오늘날의 노력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존경의 글을 통해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항일 학생 운동사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학교명 일러두기

일제강점기	현재
불교중앙학림	동국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조선약학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래고등보통학교(1916~1937)	동래고등학교
동래중학교(1938~1951)	동래고등학교
부산공립상업학교(1911~1922)	개성고등학교
부산제2공립상업학교(1923~1943)	개성고등학교
부산진보통학교	부산진초등학교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사립구명학교	구포초등학교
사립동명학교	명지초등학교
사립일신여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대한 독립 만세



1919년 3월 11일, 부산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특히 학생들이 앞장서서 일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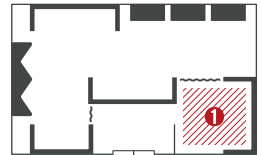
첫 번째 공간에서는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그들의 열망을 짚은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며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대한 독립 만세, Stop motion animation

2025년, 2분 57초

기획·구성 부산교육역사관, 영상 제작 디포레스트



독립운동을 함께한 학생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부산에서는 3월 11일, 사립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동래, 구포, 기장 등으로 퍼져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민중 자본가들과 협력하며 독립운동 참여를 이끌었다.

두 번째 공간에는 부산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3·1운동, 동맹휴교同盟休校, 부산항일학생운동(노다이乃台 사건) 등을 소개한다.





미투리
조선후기, 26×9×7cm
김해민속박물관 소장

미투리는 삼베 따위를 짚신처럼 삼은 전통 신으로 짚신보다 촘촘하게 짜여있다. 1910년 고무신이 도입되었으나 짚신과 함께 널리 사용되었다. 삼베나 천을 가늘고 단단하게 꼬아 끈으로 만들어 신발의 양옆과 뒤축을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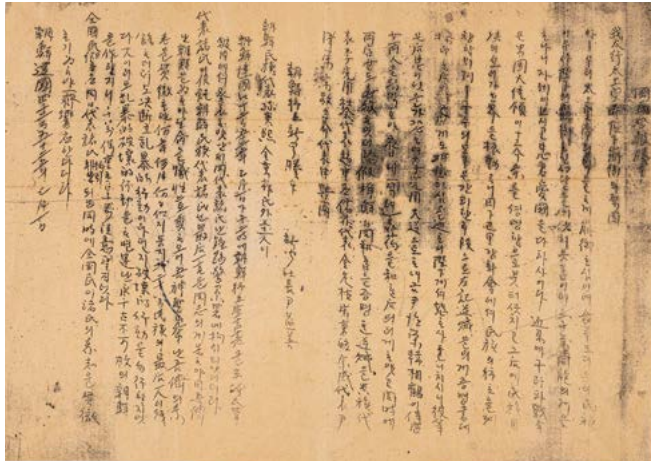
3·1운동 당시 동래 출신의 광상훈은 일본의 검열을 피해 '독립선언문'과 '격문'을 창호지에 옮겨 적은 뒤, 가늘게 잘라 그것을 미투리 끈처럼 꼬아 신발에 감아 서울에서 동래까지 직접 운반한 일화가 있다.



등사기
1970년대, 56.2×38.2×13.5cm
부산교육역사관 소장

등사기는 글씨나 그림 등을 찍어내는 인쇄 도구이다.

3·1운동 당시, 부산의 학생들은 항일 의지를 전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되던 등사기로 '독립선언서' 수백 장을 등사했다. 이들은 등사한 선언서를 동료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독립운동에 나섰다.



지하신문 등사본
1919년, 35×25cm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1919년 3월 1일자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에 등사된 국내 최초 지하신문*으로 추정된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경찰서에 구금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폭력적,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비폭력 방침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 있다. 또한, '국민회보' 기사에는 일본에 의한 고종 독살설을 제기하며, 귀족 대표 이완용 등 6인을 지목한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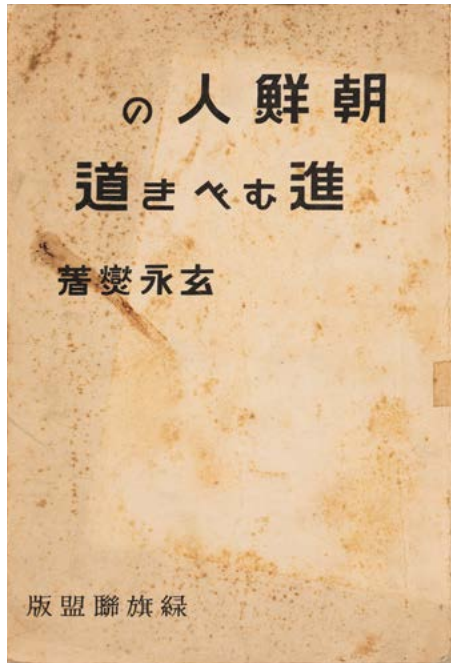
*지하신문: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제작·배포된 신문

學業		學年		學科		學分		學費		學雜費		學用品費		學膳費		學宿費		學其他費		學合計		學備註		
第一學年	78	65	80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第二學年	70	70	80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第三學年	70	75	80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第四學年	85	70	85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合計	262	210	250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358

姓名		安 五 卿	
生	民國二十六年五月十四日	籍貫	慶南都寧府高靈面文
父	安 國 濟	職業	農業
母	安 鍾 輝	職業	農業
保證人	安 熙 濟	職業	社會員
備考	其他	轉進學入理由	

경남여자고등학교 안오경의 생활기록부
 1927년~1931년, 26.2×36.5cm
 경남여자고등학교 소장

부산항고등여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하였고, 그 중 3명은 퇴학, 일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경남여자고등학교 제1회 생활기록부에는 퇴학생과 무기정학생의 명단이 확인되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1번 학생 안오경의 기록에서는 보증인란에 그녀의 백부인 백산 안희제의 서명이 있다. 이는 그녀의 가족과 주변 인물이 독립운동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이 나아갈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

1938년, 12.8×18.9cm

부산교육역사관 소장

일제강점기 교과서

1930년대 일본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을 내세워 조선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목표가 철저히 반영되어 민족 문화 말살과 황국신민(皇國臣民)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행해졌고 이러한 억압적 교육정책은 조선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이 나아갈 길》은 친일단체에서 활동하고 해방 후 일본으로 도주한 현영섭이 지은 책으로 조선인은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천황을 신격화하며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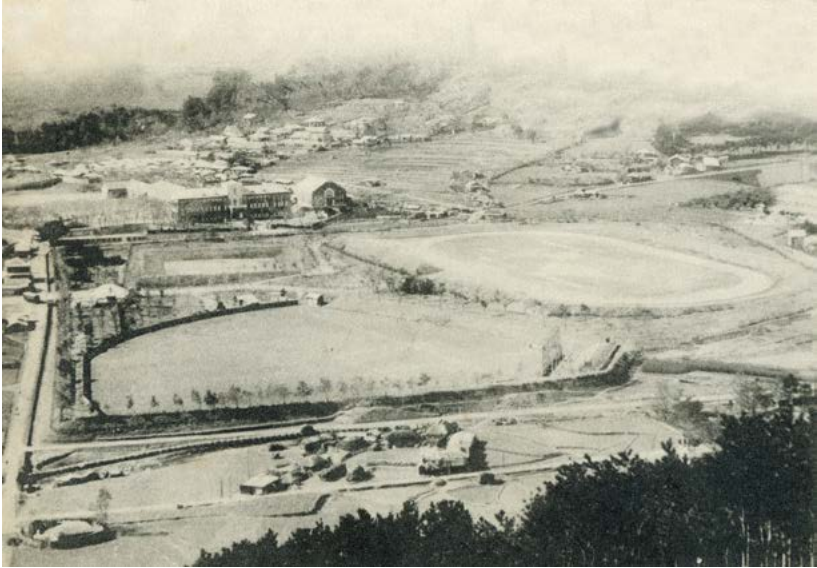


황국상공수신서 권3皇國商工修身書 卷三

1939년, 14.8×21cm

부산교육역사관 소장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검정 교과서이자 일제강점기 중등용 수신 교과서이다. 이는 훌륭한 일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실업 교육을 통해 일본에 충성할 하급 실무자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1934년 부산공설운동장의 모습, 현 구덕운동장(서대신동)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가 개최된 장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부산항일학생운동

부산항일학생운동은 1940년 11월 23일 일어난 일명 노다이깡사건이다.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에서 육군대와 노다이가 일본인 학교를 우승시키기 위해 조선인 학교에 편파 판정을 내리자 학생 천여 명이 대신동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영주동 노다이 관사까지 행진하였다. 검거된 학생 수만 200여 명에 이르는 부산항일학생운동의 상징이다.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국방경기
내용

경기종목	경기 내용
100미터	(개인 종목) 총 가지고 달리기
400미터 릴레이	(4인 1조) 총을 바톤 삼아 달리기
80미터 장애물	(개인 종목) 총을 들고 장애물 뛰어넘기
넓이뛰기	(5인 1조) 무장하여 넓이뛰기 총구에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총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총구멍이 땅에 닿으면 무효
높이뛰기	(5인 1조) 무장한 상태에서 높이뛰기 단, 총은 소지하지 않되 대검이 빠지면 무효
턱걸이	(5인 1조) 총은 가지지 않고 철봉에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5인 1조) 수류탄 멀리 던지기
토낭운반	(5인 1조) 모래를 넣은 8관(30kg) 가마니 짊어지고 이어 달리기
비상 소급	(개인 종목) 하지만 입고 누워있다가 총소리에 빨리 일어나 달리면서 옷 입고 각반 차기
담가(들것)운반	(5인 1조) 1명은 환자로 담가(들것)에 실리고 4명은 담가(들것)들고 달리기
중량물 들기	(개인 종목) 6관(22.5kg) 역기 들기
씨름	(5인 1조)
견인경주	(5인 1조) 큰 널빤지 위에 모래 가마니 세 개 실고, 긴 줄 잡아당기기
줄다리기	(20명 1조) 줄 당기기
무장 행군	(20명 1조) 무장한 채 한 손에 밧줄을 잡고 2,000미터 마라톤하기

출처: <백양 삼세기(III)>, 2015년,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

가슴으로 잇는 독립의 숨결



독립운동은 조국의 자유를 위한 헌신으로, 과거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미래 세대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필사 공간과 부산의 독립운동가에게 보내는 부산 시민들의 편지도 살펴볼 수 있다.





광복 1주년 기념 엽서, 오주환
1946년, 10.2×15.2cm
영천역사박물관 소장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청 체신부는 광복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엽서를 발행했다. 앞면에는 오주환 화백吳周煥/1915~1989이 그린 일장기를 밟고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와 끊어진 쇠사슬이 있다. 뒷면 기념 스탬프에는 태극기를 든 청년이 쇠사슬을 끊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1주년을 기념하는 영문 문구와 함께 태극기, 성조기가 있어 당시 미군정 하 시대상도 엿볼 수 있다.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釜山出身 獨立闘士集
1982년 13×19×3.4cm, 김삼근 저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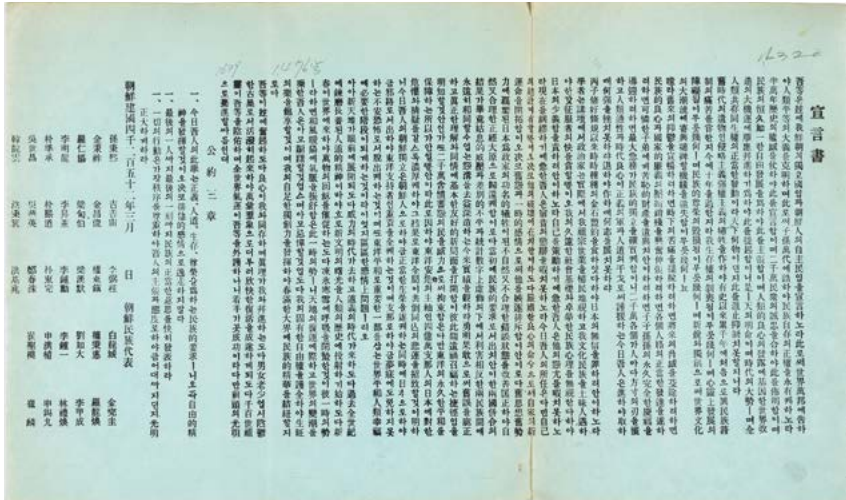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부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 김삼근은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알리기 위해 4년에 걸쳐 이 책을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차정 초상, 윤석남
2020년, 210×94cm, 한지 위에 분채
작가 소장

윤석남1939년생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로,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통해 그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녀는 초상화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인물의 삶과 여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여긴다.

작품 속 '박차정 의사'는 양손에 단단히 쥔 총과 굳게 다문 입술이 특히 인상적이다. 강렬한 색채와 결연한 표정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강인한 의지와 정신을 힘 있게 전달하고 있다.



3.1 독립선언서 등사본 己未獨立宣言書 謄寫本
 1919년, 46.3×25.8cm
 부산교육역사관 소장

1919년 3월, 조선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정당성을 국내외에 알린 역사적 문서이다. '선서서약書'로 시작하며, 조선인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스스로 독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에는 공약 3장公約 3章과 조선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전시장에는 3·1독립선언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한 문장씩 이어 쓰는 필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발표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09:00~12:00, 13:00~17:00

* 입장마감 16:00

*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해설 및 교육 신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견학 체험/교육 연수-부산교육역사관)

* 부산교육역사관 홈페이지 참조

* 현장 접수 가능(선착순)

입장료

무료

교통편

버스

(마을)사하구1, 1-1, 서구2, 2-2

감천문화마을 부산교육역사관 하차(도보 4분)

지하철

토성역 6번 출구 > 도보 30분 혹은 마을버스 환승

자갈치역 1번 출구 > 마을버스로 환승

주차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 상기 내용은 부산교육역사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역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글과 이미지 저작권은 부산교육역사관과 저작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 변형을 금하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